

대흥산업가스 기업소개

대흥산소(설립자 김천태(金千泰) 1944년생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는 1976년 7월 8일 군산시로부터 고압가스판매사업 허가를 획득하고 전북 군산시 장재동 337번지에 1976년 8월 4일, 군산지역의 고압가스 판매 사업자로 출발하였으며 창립 당시는 가스 운반용 화물 자전거 한 대로 출발하여 군산지역의 기계 가공, 용접 등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산소, 아세틸렌을 주요 제품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과 함께 하였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자는 직접 국가기술자격증(고압가스화학기능사, 등록일: 1976년 10월 7일)을 취득하여 전문지식을 쌓게 된다.



그림 1 군산시 장미동 소재 대흥산소 전경 사진(1984년 촬영)

1980년 군산시 장미동으로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였으며, 군산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인 부안, 정읍, 익산, 전주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확장하면서 무사고 사업장 관리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군산 지역에 입주하기 시작하는 한국유리공업(現, LX글라스), 기아특수강(現, 세아베스틸)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물론 전북 지역의 다양한 사업장에 가스 제품을 공급하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군산하구둑 건설 현장, 오

식도 산업단지 조성 현장 등에 어려운 현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인 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여 공사 및 제작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표자를 비롯한 전 직원의 아낌없는 노력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용 가스 제품이 필요한 현장에 정확하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안전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의 경영 방침을 정립하면서 성장하였다. 창업자께서는 직원들에게 항상 ‘다양한 현장에 필수적인 가스를 공급하는 우리는 군산 지역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라’는 당부를 하시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진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동종업계의 치열해진 경쟁과 과당경쟁 등에 맞서 사세(事勢)를 지켜오던 중에 힘든 위기를 여러 차례 마주했으나 직원들과 합심하고 술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극복해 왔으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대쪽같은 성품으로 성실함을 보여주며 극복해왔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업자께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하기 위해 사재를 동원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회식과 야유회 등을 통해 단합하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든든한 직원들과의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마침내 단순 유통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그림 2 군산시 산북동 소재 대흥산소 사업장 전경 사진(2002년 촬영)

2002년 군산시 산북동으로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며, 판매업에서 충전/제조로 업태 변경과 대흥종합가스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제조 판매업을 시작하였다. 2002년 ISO9001 인증을 획득하고 2003년 공장등록을 마쳐 제조업으로 발전을 시작했다.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와 충전 설비를 통해 고압가스 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 원활한 가스의 공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2006년에 고압가스 충전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쳐 2008년에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명을 현재의 대흥산업가스 주식회사로 변경하게 된다.

2014년 6월 27일, 새로운 산업 분야 발굴과 고도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인정받게 된다. 이후 지속적인 정부과제 수행과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스 분야는 물론 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2017년 4월 27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강소기업 인증서를 획득하였고 계속하여 창업 이후 40여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실로 성과를 맺기 시작한다.

2018년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대표이사 김천태가 수상하였으며, 2018년 4월 12일 산학공동연구개발의 성과로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개발품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를 획득하였고, 같은 해 전라북도로부터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으로 5년간 지정되는 영광을 맞보았다.

2019년 10월 16일은 창업자의 장남이며, 2018년 1월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김성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개방형혁신 및 기술융합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한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실증특례사업자로 선정되며 신규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를 연구 및 실증하는 사업에 주관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실증사업의 결과, 도시가스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허 등록 3건, 이동식 LNG 충전사업소 2기

구축,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컨테이너 형태의 LNG 충전 시스템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을 통해 현재는 고압가스 제조, 의료용가스 제조(GMP 인증), 110여종이 넘는 특수가스 저장 및 판매 허가, 헬륨 충전시설, 수소 충전시설 등을 구축하는 등 시설에 적극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의 복지 증진과 건강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동군산병원과 제휴를 맺고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온실가스 관련 노하우를 이전받아 약 십여년을 연구해온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 설계 및 운전에 관한 기술적 토대를 완성하게 된다. 이후 이산화탄소 포집이 필요한 발전소 및 소각장 등에 소개를 하였고 2023년말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플랜트를 준공하게 된다.

대흥산업가스(주)는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자 하며, 2026년이면 반백년의 시간을 통해 성장한 회사를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지역에 기여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임직원 및 가족의 행복을 이어나갈까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림 3 군산시 산북동 대흥산업가스 전경(2025년 촬영)